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기)한화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3. 11. 1.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편입 정기예금 상품 취급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검사기준일(2021.12.31.) 현재 수신총액 중 퇴직연금 정기예금 비중이 43%로 높아 상품 특성에 따른 계절적 변동성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불일치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저축은행과 연계된 퇴직연금사업자별 비중을 보면 상위 4개 사업자 비중이 75.5%에 이르는 등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어 영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유인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금조달 계획하에 수신상품별, 기관별 적절한 취급 한도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상품·기관에 대한 편중도를 낮추고, 특정 시기의 만기 집중도를 완화하는 등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을 감안한 실효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여신 편중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검사기준일(2021.12.31.) 현재 총여신 중 기업대출 비중이 91.2%에 달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위주로 취급하는 등 특정 부문·업종에 편중하여 여신을 취급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 급변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특정 부문·업종에 대한 여신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경영환경을 둘러싼 각종 위험요인을 적시에 인식·평가하여 여신 유형별 규모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유가증권투자 관련 위험관리체계 강화

검사착수일(2022.3.23.) 현재 유가증권투자 중 기초자산이 부동산인 집합투자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가 55.2%에 달하고, 집합투자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 등의 만기도 1.8~5.6년으로 비교적 길어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의 사업목표, 자본수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산별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고, 기초자산, 만기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검사기준일(2021.12.31.) 현재 여신감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아닌 PF대출 영업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PF대출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고, 'PF대출사후관리카드'를 통한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진행상황, 분양현황, 공사진척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실하게 수행되지 않는 등 PF대출의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바,

앞으로 여신감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PF대출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사후관리가 수행되도록 하고, 'PF대출사후관리카드'를 통한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진행상황, 분양현황, 공사진척도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PF대출 리스크관리를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감사보조조직 인력 및 운영체계 정비 필요

내규「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사보조조직 인력을 3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는 감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2016.10.31.부터 검사착수일

(2022.3.23.) 현재까지 감사업무 담당인력이 직무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시 감사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감사보조조직에 대한 인력 및 운영체계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직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감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감사보조조직의 인력 및 운영체계 정비를 통해 감사업무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